

# 율령 반포

## 삼국, 왕의 법을 나라 안에 선포하다

373년 ~

### 1 개요

율령(律令)이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과 제도이다.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되는 율령을 통해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삼국의 율령 반포는 삼국이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 2 율령이란

‘율(律)’은 현재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령(令)’은 지금의 행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다. 예를 들면 행정 관청들의 역할과 그곳에서 일하는 관원들의 위계, 직무, 정원, 인사규정 등 행정 관료제를 규정한 것이라든가, 백성들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취하는가 등의 통치 방법 등이 ‘령’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율령은 중국 왕조에서 발전한 법제이다. 중국 왕조들에서는 율령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편찬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갔는데, 삼국은 중국 왕조들의 율령을 참조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나라 안에 공표하였다. 따라서 삼국의 율령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통치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정치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정·반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율령 반포 이전의 상황

삼국은 각각 5개 내지는 6개의 큰 정치 집단인 부(部)의 연합·연맹체로서 건국되었다. 세력이 가장 강한 부의 수장이 국가 전체의 대표인 왕이 되었지만, 각 부들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왕이 초월적인 권력자가 될 수는 없었으며, 자신이 속한 부 이외의 다른 부들의 내부 통치에 강력하게 간섭하기가 힘들었다. 비록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국가의 대표이기는 했지만, 각 부는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각 부의 내부 일에 간섭하지는 못했다. 하나의 나라가 다시 몇 개의 자치적인 통치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삼국 초기의 국가 체제에서는 나라의 통일된 법과 제도가 없었다. 중대한 범죄와 같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부의 유력 지배자들이 모이는 상설적인 회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처분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 사항을 유력 지배자 전체의 이름으로 국내에 공표하고 집행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국정 운영 역시 5부 내지는 6부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나라 안이 몇 개의 지역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나라였지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백성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지배자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었고, 왕과 국가에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삼국 초기의 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력을 집중하기 힘들고 분열하기 쉬운 문제가 있었다.

### 4 율령 반포의 배경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삼국은 점차 주변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삼국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주변과의 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의 경우 1세기 중반 태조왕(太祖王) 대부터 활발한 대외 확장을 이루어나갔고, 4세기 초에는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 내에 설치되었던 중국 군현을 400여 년 만에 몰아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제정세는 중국 대륙에서 통일 제국인 진(晉)이 붕괴하고, 5호 16국의 혼란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결과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선비족(鮮卑族)의 전연(前燕)과 고구려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는데, 342년(고국원왕 12)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도가 함락되는 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울러 남쪽으로는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둘러싸고 백제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371년(고국원왕 41) 고국원왕(故國原王)이 평양에서 전사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전을 잘 치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만 했다. 유력자들의 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집권적인 체제를 통해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또 나라 안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법과 제도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에서는 국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하나의 제도에 입각해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변화시켜야만 했다. 생존을 위해 국가체제를 왕권 중심의 집권적인 체제, 나아가 전 영역을 직접 지배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했던 것이다.

백제 역시 4세기 중반 이후 주변으로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특히 황해도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백제는 일시적으로 고구려에 우세를 점하기는 했지만, 곧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반격을 받아 위기상황에 직면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체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신라는 4세기 말 백제와 가야(加耶) 등의 침입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5세기 중반 이후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고구려의 신라 정벌을 불러왔고,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지금의 포항 지역까지 진출하며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 신라 역시 당시 정세를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국가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듯 삼국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체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 5 삼국의 율령 반포와 그 영향

삼국은 국가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공히 율령을 반포하였고, 이 율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전까지는 성문화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관습법 체제였고, 법 적용 방식 역시 유력자들의 회의를 통한 결정과 집행이었지만, 율령 반포 이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유력자들의 회의가 아니라, 이미 포고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고 벌을 주는 법 적용으로 바뀐 것이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그리고 이 율령은 왕의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이 점은 왕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반면,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양자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였지만, 이제 왕은 율령을 만드는 독보적 존재가 되었고, 귀족들은 그 율령의 제약을 받는 즉 왕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구분된 것이다.

법 적용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왕권 위상의 변화는 그대로 국가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왕이 국정 최고 결정권자로서 강력한 위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왕명을 통해 국정이 결정되고 집행되었으며, 국정 운영을 결정하던 유력자층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귀족 관인으로 변모되었다. [관련사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중앙 관청들의 설치와 관료제적인 관직체계의 마련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가의 영역 내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방관 파견 등을 수반한 지방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나간다. 전반적인 국가체제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삼국의 발전 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율령 반포 이후 삼국은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공표되어 시행되었던 왕법에 의해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왕의 통치를 받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동질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삼국이 국력의

행사를 위하여 모든 영토와 그 안의 구성원들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것이다. 삼국은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크게 발전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4세기 말~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長壽王) 대에 동아시아의 패자로 올라서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백제 역시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에서 개로왕(蓋鹵王)에 이르는 시기에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면서 고구려와 경쟁 관계를 구축하여 나갔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 보다 늦은 6세기 초 법흥왕(法興王) 대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마련하였고, 이어서 진흥왕(眞興王) 대에 대대적인 영역확장을 수반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